

# 입학사정관제 신입생을 위한 대학적응교육 프로그램 개발

윤소정 · 윤채영<sup>†</sup>

(부산대학교)

## The Development of College Adjustment Program for Freshmen via Admission Officer System

So-Jung YUNE · Chae-Young YOON<sup>†</sup>

(Pusan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college adjustment program for freshmen through admission officer system that relies less on test scores and on the various talents evaluated by admissions officers. To help these talented students adjust the new life of the university and enhance their gifts, a college adjustment program was developed with their special needs and characteristics. For that, the survey with 57 student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12 students were conducted.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students wanted to learn study skills, self-management, global mind setting, and life vision and goals setting. Most of the students were worried about their grades because they entered the school with their talents and experience in diverse activities not SAT scores. To promote their academic performance, this program consisted of an academic readiness program which complements students' abilities in primary subjects like math, English, and science, and a potential progress program which is peer-group learning communities based on their own interests like global learning communities, creative learning communities, and service-learning communities. This program was suggested in the context of Comprehensive Development Model. To carry out the program systematically, related organizations and colleges should collaborate with each other.

*Key Words : Admission officer system, College adjustment program for freshmen via admission officer system*

### I. 필요성 및 목적

한국의 높은 교육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만연하나 전쟁의 폐허를 딛고 반세기만에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던 성장 동력이 교육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박영신, 김의철, 2002). 한국사회는 그동안 교육을 통해 사회와 경제를 움직일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왔다. 시대 흐름과 사회적 요구에 맞는 인재상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사회의 중요한

<sup>†</sup> Corresponding author : 051-510-3840, chaeyoungy@hanmail.net

\* 이 논문은 2009년 부산대학교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의 연구과제로 진행된 '신입생 적응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내용 일부를 연구화 한 것이다.

화두가 되어 왔으며, 21세기에는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를 이끌어 나갈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는데 교육의 방향을 설정해 두고 있다(김용기, 2008).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 선발에는 대학 입시가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입시는 사회적 인재 선발 기능을 담당할 뿐 아니라 중등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강현석, 2010; 노명순, 2006). 그러나 선발기준과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권 교체나 여론에 떠밀려 입시정책은 지난 반세기 동안 크게는 15번, 세부적으로는 무려 36차례나 바뀌는 파행을 거듭해 오고 있다(노명순, 2006; 이현정, 2006). 또한 대학입학시험 성적과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기존 방식은 창의성과 사회성을 겸비한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박선형, 박남기, 2008; 유현주, 2009).

이런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과과정 내의 활동영역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학생의 특성을 최대한 나타낼 수 있도록 대학의 선발기준과 전형방식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정현웅, 김미숙, 임윤희, 권희숙, 2007). 국어·영어·수학 교과중심의 비정상적인 교과운영 및 성적위주의 편협한 대학 신입생 선발방법으로는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 대학의 설립이념을 고려한 학생선발에 어려움이 있다(김용기, 2008; 김정희, 2008).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에서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사회성, 창의성, 잠재능력, 봉사능력, 리더십 등 다양한 능력을 가진 학생을 우수학생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다양한 능력을 가진 학생을 대학입학전형에서 선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양성관, 2008). 이러한 학생선발제도의 개선안으로 2008년도부터 입학사정관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

입학사정관제도는 대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대학의 학생선발 방법 등에 전문가인 입학사

정관을 채용하고, 입학사정관들이 학생의 성적, 교육 환경, 학습과정, 잠재력 및 소질·적성, 인성, 창의성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이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0). 입학사정관제도는 대학입학전형의 종합화를 특징으로 하여, 면접, 자기소개서, 학생부, 봉사활동, 특기, 리더십, 논술, 수능 성적 등의 다양한 전형요소를 활용하여 학생을 심층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한다(정일환, 김병주, 2008). 성적의 항상 폭으로 학생의 수학과력과 잠재력을 평가하기도 하며, 향후 대학과 사회에서의 발전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지원자의 성실성, 리더십과 의사소통능력, 전공영역의 미래발전가능성과 잠재력, 사회봉사정신, 창의적 사고력, 학습에 대한 열정, 대학 건학이념과의 부합 여부 등의 다면평가, 정성평가 기능을 강화하였다(양성관, 2008).

입학사정관제는 2008학년도 10개 대학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되었고, 2009학년도 40개 대학, 2010학년도 50개 대학에서 2011년에는 118개 대학까지 점차 확대되어, 2012년까지는 우리나라 입시전형 내에 정착될 예정이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0).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설립목적, 건학이념, 교육철학에 따른 맞춤형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전형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김용기, 2008). 그 대표적인 예로 가톨릭대의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건국대의 리더십 전형과 자기추천 전형, 경북대의 리더십 우수자 전형과 이웃사랑전형, 중앙대의 다빈치인재전형, 인하대의 대안학교전형, 경희대의 네오르네상스 전형, 부산대의 효율 인재전형, 서울대의 농어촌특별전형과 기회균형선발 특별전형 등이 있다. 이들 전형에서는 학생부와 서류심사, 면접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0).

입학사정관제 도입 초기에는 외국대학, 특히 미국과 일본대학의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한국에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박선형, 박남기, 2008; 양성관, 정일환, 2007;

정일환, 김병주, 2008). 그 후, 입학사정관제 정착 및 확대를 위해 입학사정관제에 관한 국내의 인식과 운영 실태, 그리고 입학사정관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권승아, 성태제, 2009; 김용기, 2008; 박혜림, 2009; 손희권, 주희정, 2009; 양성관, 김택형, 2008; 양성관, 2009). 또한 입학사정관 역할과 입학사정관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김택형, 양성관, 문성빈, 2009; 유현주, 2009)와 사교육비 경감방안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진 바 있다(안선희, 정일환, 주동범, 2009).

그러나 어떻게 잘 선발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선발한 후 학생들을 어떻게 원래 목적대로 키우느냐는 더 중요한 문제이다(유현주, 2009). 다시 말해 선발된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는 추수 지도 관리는 입학사정관제도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입학사정관들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입학생들의 학업이나 교우관계, 그리고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정도를 수시로 파악하여 이들의 학업성취나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문제점은 무엇인지 탐색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는 일이다(정진곤, 2005).

일본의 규슈대학에서는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선발된 신입생들에 대한 추수관리 활동으로 학생들의 학교적응도와 학업성취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향후 보다 바람직한 입학사정관 선발체제 확립을 위한 개선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박선형, 박남기, 2008). 이는 신입생 사후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학생들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할 때 입학사정관제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생선발과 대학교육 간 연계성을 높여 입학사정관제의 취지와 제도의 효과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합격된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한 추수 지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육으로의 순조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신입생 적응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성적보다는 잠재력에 높은 평가를 받아 입학하게 된 입학사정관제 학생들의 학습의욕과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 줄 수 있는 신입생 프로그램이 더 필요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일부 대학에서는 입학사정관제 신입생을 위해 고등학교와 연계한 입학전 예비교육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개별교습, 동료협력 프로그램, 학습공동체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입학사정관 전형 대학생을 위한 추수 교육 프로그램은 입학사정관제 입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한편으로 대학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을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대학 신입생이 겪는 문제 즉, 갑자기 자율적인 생활과 주도적인 학업생활을 하도록 요구받게 되면서 겪게 되는 학업문제와 인간관계문제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1학년 때부터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김은영, 2001; 김종운, 김현정, 2010). 또한 각 학년별로 겪게 되는 학생들의 다양한 문제에 적합하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한 후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신소영, 박양근, 2006; 염민호, 이효성, 2007; 이제봉, 2007).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입학사정관이나 대학관계자, 고등학교 교사 그리고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입학사정관제의 인식이나 실태에 대해 알아보았으나(권승아, 성태제, 2009; 김석우, 황해익, 김아영, 김성숙, 2009; 김용기, 2008; 유현주, 2009; 이제중, 2009), 정작 교육 당사자인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입학한 신입생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입학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교육에의 요구를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입학사정관제 신입생을 위한 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입학사정관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대학 적응 프로그램의 개발

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리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우수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사회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입학사정관계 신입생들의 대학 적응 교육에 대한 요구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입학사정관계 신입생들을 위한 대학 적응 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가?

## II. 방 법

### 1. 대상

연구대상은 2009년 부산 P 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입학한 신입생 67명이다. 입학사정관 전형은 1단계 학생생활기록부 심사 (100%, 교과외 활동 포함)와 2단계 심층면접(100%)을 거쳐 입학한 학생들로 모집단위 관련 분야에 잠재력, 창의력, 열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1단계의 성적과 관계없이 합격시켜 2단계 심층면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입학사정관 전형의 신입생은 잠재력 및 창의력이 우수하고 관련 분야에 재능과 열정을 보이는 학생들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설문조사에는 총 57명이 응답 하였으며(응답율: 85.07%), 포커스 그룹 심층면담에는 12명이 참여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별 구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설문조사 참여자의 성별 구성 n(%)

구 분	남	여	전체
설문 조사	32(56.1%)	25(43.9%)	57(100.0%)
포커스 그룹 면담	남	여	전체
	5(41.7%)	7(58.3%)	12(100.0%)
	공과대	자연대	
2(28.6%)	3(42.9%)	7(58.3%)	

### 2. 절차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입학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설문조사에 대한 안내를 한 후 온라인을 통해 신입생 적응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 추수 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심층적인 요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은 계열별 특성을 고려하여 총 3팀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반구조화 면담 형태로 구조화된 질문을 하되, 응답자는 자유로이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를 통해 나타난 학생들의 요구와 선행연구 고찰 결과를 토대로 신입생 적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개발된 프로그램은 교육 전문가 4명(교수 3명, 박사과정생 1명) 및 입학사정관 2명을 통해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 3. 도구

가. 신입생 대상 적응교육 요구 조사 설문지

입학사정관계 신입생 요구 조사 설문지는 선행 연구 고찰 및 전형요소의 특성 분석 후 본 연구자들이 개발하였으며, 입학사정관 2명을 통해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받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대학생활을 통해 가장 얻고자 하는 것과 학교 적응을 위해 신입생에게 필요한 교육과 실시 방법에 대한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폐쇄형과 개방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 대한 결과는 제외하였으며, 신입생 교육에 대한 요구만을 중심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나. 계열별 포커스 그룹 면담지

선행연구 고찰 및 웹 베이스드 설문에서 나타난 효원인재 전형 학생들의 주요 요구사항을 토대로 포커스 그룹 면담용 질문을 개발하여, 입학사정관들에게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아 사용하였다. 반구조화 된 면담 형태로 5가지 질문을 통해 응답자가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

답에서 다른 문제는 학교 진학 시 걱정되는 내용, 학교에서 지원해주기를 원하는 내용, 희망하는 프로그램, 장래 희망 및 진로, 입학사정관전형의 개선점 등이었다.

#### 4. 분석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는 빈도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그리고 설문조사의 서술형 응답과 심층면담 내용은 질적 내용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 Ⅲ. 결 과

#### 1. 입학사정관제 신입생들의 대학 적응 교육 요구

가. 적응교육에 대한 요구

입학사정관제 신입생들에게 대학생활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을 3가지 고르도록 하고 다중응답 처리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공지식 습득(28%)이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취업 및 진학 준비(21%), 폭넓은 대인관계(18%)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2> 대학생활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

	전공지식 습득	넓은 교양 습득	폭넓은 대인관계	이성교제	사회·학생운동 참여	취업·진학 준비	동아리·취미 활동	사회·봉사 활동	기타
n (%)	49 (28)	16 (9)	32 (18)	2 (1)	3 (1)	36 (21)	16 (9)	12 (7)	3 (1)

신입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의 희망 정도에 대해서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매우 그렇다 33%, 그렇다 33%로 답하였으며, 개 최해 주기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3%였다. 응답 자중 96%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 적응을 위한 위 크숍 및 특강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신입생의 적응 교육에 대한 희망 정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n (%)	19(33)	19(33)	17(29)	2(3)	0(0)

신입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다중응답으로 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인 프로그램은 학습전략 프로그램(21%) 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자기관리 프로그램(18%), 국제적 마인드 개발 프로그램(18%), 비전 및 목표 설정 프로그램(1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신입생이 희망하는 대학 적응 프로그램

	학생생활내 프로그램	대학교육에서의 학습전략 프로그램	비전 및 목표설정 프로그램	자기관리 프로그램	국제적 마인드 개발 프로그램	교우관계 및 사회관계성 프로그램	자신해하기 프로그램 (성격, 습관, 스타일 등)	기타
n (%)	5 (3.0)	36 (21)	28 (16)	31 (18)	30 (18)	17 (10)	18 (10)	1 (0)

그리고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신입생 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적절한 시행 시기와 시행 기간에 대한 질문에는 2월이 가장 적당 하다는 반응이 많았으며(36%), 다음으로 입학 후 3-4월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33%). 그리고 시행 기간에 대해서는 1박 2일 연수를 가장 희망하

<표 5> 신입생 적응교육 프로그램의 시기와 기간

시행 시기	합격 발표 직후	1월	2월	입학 후 3~4월	입학 후 여름 방학
n (%)	2(3)	11(19)	21(36)	19(33)	4(7)
시행 기간	2일 이상	1일	반나절	1-2 시간씩 여러 차례에 걸쳐	1박 2일 연수
n (%)	3(5)	12(21)	9(15)	14(24)	19(33)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33%), 다음으로는 1-2 시간씩 여러 차례에 걸친 프로그램 진행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

나. 단과대학별 적응 교육에 대한 요구

심층면담과 설문지의 개방형 문항에 대한 응답 내용을 토대로 하여 계열별로 적응교육에 대해 어떠한 요구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공학 계열

공학계열 학생들의 경우, 대학 진학 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까봐 걱정되고, 기초학력시험에 부담을 느끼며, 더 뛰어난 학생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을 입학사정관제 출신이라고 보는 주위의 시선이 두렵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대학 적응을 위해 지원해 주기를 원하는 내용으로는 학생의 잠재력에 따라 지원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세계를 둘러 볼 수 있는 기회 제공(교환학생 프로그램), 개인 지도교수 지원, 대회참여 지원, 봉사활동 지원, 공모전 지원, 효원 인재 전형을 위한 특별 장학금 제도, 선행지식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때 고학년들에게 개설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방안 마련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희망하는 프로그램으로는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튜터링 및 스터디 그룹, 선배나 교수님과 연계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대학의 변화되는 분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들었다.

“입학사정관제는 성적도 보지만, 그 외의 특성을 잘 고려해서 뽑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학생의 능력을 고려해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공과대 A 군)

2) 자연과학 계열

자연과학 계열의 학생들의 경우 입학 전 학과 공부에 대해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즉, 기초학력시험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 다른 학생들의 내신 성적에 비해

자신의 점수가 낮아 위축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영어 공부에 대한 부담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에서 지원해주기를 희망하는 내용으로는 기초학력증진 프로그램을 가장 많은 학생들이 말했으며, 개별교수의 지도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가장 걱정하는 점은 수준 차이입니다. 여러 전공지식이나, 교양 등의 학습 면에서, 다른 학생들과 많은 차이가 느껴질 수 있다는 것에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자연과학대 D 군)

3) 인문/상경 계열

상과대학/인문/사범 계열의 경우, 영어실력이 우수하여 입학하게 된 학생들이 많아 영어 외의 다른 과목 성적을 걱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대학에서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것에는 전형에서 반영되었던 활동들이 대학성적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응답하였다. 그 밖에도 우수했던 영어실력을 계속해서 길러나갈 수 있도록 외국인과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거나 대학원생 튜터를 이용한 영어 스터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입학 후 진로를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졸업생이나 재학생간의 멘토 프로그램을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효원인재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면접을 거쳐 합격하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학과 공부와 관련되면서도 효원인재전형 신입생에 맞는 프로그램 또는 단체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과대 B 양)

“타전형과는 달리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고 대학에서 선택한 만큼 주입식교육보다는 창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공 과목에 대한 틀에 박힌 교육보다는 좀 더 창의적이고 활동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문대 C 양)

“우선 효원인재전형의 취지답게 그 각 개인의 특성과 성향을 살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 없는 자기 개발을 위한 상담과 조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범대 E 군)

## 2. 입학사정관제 신입생들을 위한 적응교육 프로그램 개발

입학사정관제 신입생들을 위한 적응교육 프로그램은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의 목표는 입학사정관제 신입생들의 특별한 소질이나 경력을 고려하여 대학 적응력과 만족도를 높이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대학의 인재로 양성하고자 하는데 있다.

개발된 프로그램 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으며, 대학의 비전 및 자신의 비전, 그리고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를 이해하여 자신의 인생 계획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는 입학 전 [변화 단계]와 자신의 비전 달성을 위한 [도전 단계], 학습공동체와 역할모델의 코치를 통한 [도약 단계], 실천을 통해 지식을 적용하며 배우는 [심화 단계], 실무



[그림 1] 입학사정관제 신입생의 적응교육 프로그램 모형

기술을 익히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수정·보완하며 사회로 나갈 준비를 마무리 하는 [완성단계]로 구성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육 형태에 있어서도 세미나, 워크숍, 학습공동체 운영과 개별 학습컨설팅으로 세분화하여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리고 정보 제공 등의 형태로 다차원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무엇보다 대학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협조체제를 구성하여 사회적 인재 양성에 힘쓰고자 하였다.

<b>변화 : 입학전</b>
• 기초학력증진/ 인생비전탐색/ 자신에 대한 이해 및 진로 탐색
<b>도전 : 1학년</b>
• 진로계획작성/ 자기주도적 학습력 향상/ 글로벌 마인드 셋팅/ 창의성 이해
• 튜터링/ 학습공동체의식 함양
<b>도약 : 2학년</b>
• 학습공동체를 통한 전공심화 학습/ 창의적 학습공동체/ 사회봉사공동체
• 멘토링
<b>심화 : 3학년</b>
• 해외 연수 프로그램/ 해외 봉사 및 문화 체험 프로그램/ 인턴십 프로그램
• 각종 공모전 및 대회 참여
<b>완성 : 4학년</b>
• 창업 동아리 운영/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준비된 리더로 거듭나기
• 실무기술 익히기

[그림 2] 입학사정관제 신입생의 적응교육의 단계별 프로그램

입학사정관제 학생들의 요구와 사회적 기대를 토대로 하여 입학사정관제 신입생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도출하여 프로그램에 반영하였다. 입학사정관제 학생들은 학습전략이나 국제적 마인드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특히 기초

학력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학사정관제 신입생의 적응교육을 통해 인지적으로는 자기주도적 학습기술, 자기관리기술, 창의적 사고력, 의사소통기술, 외국어능력을 기르고 정서적으로는 리더십, 봉사정신, 공동체의식, 글로벌 마인드, 개방성을 기르고자 하였다.

<표 6> 입학사정관제 신입생의 적응교육을 통한 대학생 역량 개발 목표

	인지	정서
하 위 역 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주도적 학습기술</li> <li>• 자기관리기술</li> <li>• 창의적 사고력</li> <li>• 의사소통기술</li> <li>• 외국어 능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더십</li> <li>• 봉사정신</li> <li>• 공동체의식</li> <li>• 글로벌마인드</li> <li>• 개방성</li> </ul>

신입생의 적응교육 프로그램은 계열 공통 프로그램과 계열특성화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계열 공통 프로그램은 대학생활 비전제시 및 대학진로 설계, 그리고 대학생활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자를 양성하기 위한 학습전략 훈련이 제공된다. 또한 개별 학습컨설팅을 실시하여 학교생활 부적응을 보이는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중재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계열 특성화 프로그램은 튜터링과 학습공동체 위주로 구성된다. 튜터링은 기초수학 능력 증진이나 선배와의 교류를 통한 적응력 제고를 위하여 진행되며, 이공계열 학생을 위한 수학 및 과학 튜터링, 인문상경계열 학생을 위한 외국어 튜터링이 있다. 그리고 학습공동체는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이 특정한 주제나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함께 학습하는 학습조직으로, 창의적 학습공동체, 글로벌 학습공동체, 사회봉사 학습공동체로 나누어 진행되도록 하였다.

## IV. 논 의

### 1. 입학사정관제 신입생들의 대학 적응 교육 요구

본 연구에서는 입학사정관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대학 적응을 위해 필요로 하는 교육적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를 선행연구결과와 비교하여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입학사정관제 신입생들이 대학교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으로는 전공지식 습득과 취업 및 진학준비가 많았다. 이는 이공계열 신입생들이 전공지식의 습득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고 밝힌 염민호, 이효성(2007)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즉, 신입생들은 지적 능력 및 학문적 능력 개발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며, 대학에서 교과목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여 취업 또는 진학을 하게 되는 것을 대학 교육의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입학사정관제 신입생들과 일반 대학생들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위의 결과는 한국 대학생의 경우 대학공부에 대한 좌절 위협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이혜성, 손영숙, 김미경(1989)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스트레스의 수준이 신입생이 가장 높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황상하, 1995). 대학생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새로운 역할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입생들에게는 중요한 스트레스 원이 된다. 주로 이러한 스트레스는 교육환경의 변화, 독립적이며 능동적인 생활방식에서의 전환, 주도적인 학업생활로의 요구, 새로운 대인관계와 대학생들에게 지각되는 사회적 기대 등 고등학교와는 다른 환경과 사회적 요구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김선경, 2003; Betterncourt et al.; Goldman & Wong, 1997; Loeb & Magee, 1992).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사회적 기대가 많고, 아직 정착되지 않은 입학사정관제도 하의 신입생은 더 많은 혼란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대학차원의 관심과 교육적 지원이 더 요구된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신입생의 학교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신입생의 학업지속이 대학에서 제공하는 학문 및 사회적 활동들을 학생이 어떻게 통합하는가에 달려있다는 염민호, 이효성(2007)의 연구와 유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대학 신입생 시기는 발달 단계로 볼 때 성장과 탐색의 단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Perry, 1982), 적절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스스로 탐색할 수 있게끔 도와야 한다는 김영경(2008)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라 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신입생들을 위한 적응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은 의미 있는 일이며, 대학에서의 첫 출발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이후 대학 적응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신입생들은 적응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에 학습 전략 프로그램과 자기관리 프로그램, 국제적 마인드 개발 프로그램, 비전 및 목표설정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대학교육을 위한 준비성의 개념 중 지식 영역을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학교환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으로 구분된다고 보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Pascarella et al., 1986; Stage & Hossler, 2000). 그 중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학습기술을 말하는 직접적 학습능력,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기술, 자기관리 능력 및 의지, 사회적 기술로 구분된다(이제봉, 2007). 이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본 연구에서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학습전략이나 자기관리, 그리고 비전 및 목표 설정 등은 모두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해당되는 대학교육 준비성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입생들 또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대

학생들의 성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염민호, 이효성, 2007). 일반 신입생들 또한 지적능력 및 학문적 능력 개발과 대인관계 생성 및 유지 능력, 진로 결정 능력, 공동체 의식 등의 함양을 주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적인 대학 신입생과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 모두가 주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능력 등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특별한 교육에 대한 요구는 계열별로 다양하다는 점에 있다. 공과 대학 학생들은 주로 전공지식과 관련한 학습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 자연과학 계열의 학생은 기초 학습능력, 그리고 상과대학이나 인문 사범 계열의 경우에는 전형별 특성을 살린 교육이나 스터디 혹은 튜터링을 통한 공동체 활동을 원하는 것으로 밝혔다.

이는 입학사정관제도가 지필고사에 의해 측정될 수 없는 잠재력 있는 우수 학생의 선발과 특성 있는 교육과정이나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유도하는데 주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정일환, 김병주, 2008)과 입학사정관제가 비인지적 차원의 다양한 능력과 개인이 처한 현실, 역사 등과 관련된 종합적이면서도 포괄적인 판단인 '개별적 검토'에 의해 선발되었음을 이해하게 한다(양성관, 정일환, 2007).

이상과 같이,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입학한 학생들은 자신들의 발전과 학교 적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학교 적응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있으나, 계열별로 지원받기를 원하는 교육의 주제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일개 대학의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로 전체 입학사정관제 입학생들을 대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2. 입학사정관제 신입생들을 위한 적응교육 프로그램 개발

입학사정관제 신입생들이 느끼는 대학적응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입학사정관제 신입생들을 위한 적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첫째, 장기적이고 다각도로 진행되며,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해 훈련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선행된 대학생의 학교적응에 관련된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적응을 학업적 적응, 심리적 적응, 사회적 적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김성경, 2003; Abouserie, 1994; Betterncout et al., 1999; Lapsley, Rice, & Shadid, 1989), 학년 별로 차이나는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변화-도전-도약-심화-완성의 일련의 단계 속에 학업과 심리, 그리고 사회적 적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활동 요소를 포함시켰으며, 이를 통해 양성하고자 하는 주요 역량을 크게 인지와 정서 영역으로 나누어 중점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다.

둘째, 대학생들은 한 개인으로서의 삶 뿐만 아니라 국가와 세계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권리와 의미가 있다(Upcraft et al., 2005). 따라서 대학과 지역사회간의 연계를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강조하였다는 면에서 개발의 타당성이 있다. 지역사회간의 연계는 주로 해외 및 국내 봉사활동, 연수, 문화 체험, 인턴십, 각종 공모전 및 대회 참여 기회 제공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일반 입시전형과 구별되는 입학사정관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열별 특성화 프로그램과 계열 공통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계열 공통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의 대학생활 비전과 대학 생활 설계, 자기주도적 학습전략 등의 훈련이 포함되어,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질 함양을 주 목적으로 하였다. 반면, 계열 특성화 교육에서는 각 계열별 학생들 간의 기초수학 능력을 위한 공동체 활동에 중점

을 두어, 튜터링과 학습공동체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은 일반 대학 신입생들을 위한 교육에서 신입생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해 좋은 친구와 우호적이며 지원적 후원을 찾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염민호, 이효성, 2007)과 대학생의 특성별로 학생들의 준비성을 파악하고 그것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모색해서 학생들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이제봉(2007)의 주장과도 유사하다.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결과로 도출된 입학사정관제 학생들을 위한 대학적응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입학전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개발되었으나, 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제 적용을 통한 효과 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이 다양한 입학사정관 전형에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대학교육은 변화되는 입학전형 요소별로 서로 다른 요구를 가진 학생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로 입학사정관제 학생들의 인식을 통해 도출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실제로 프로그램화 하여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 참고 문헌

- 강승희(2010). 공학전공 대학생의 전공학과 만족도와 진로결정 효능감 및 진로태도 성숙간의 관계, *수산해양교육연구*, 22(2), 151~164.
- 강현석(2010). 중등교육과정과 입학사정관제의 연계성에 관한 시론적 고찰, *교육과정연구*, 28(2), 121~141.
- 권승아·성태제(2009). 입학사정관 제도 운영 실태와 입학사정관의 인식, *교육학연구*, 47(1), 95~118.
- 김석우, 황해익, 김아영, 김수연, 김성숙(2009). 고

- 등학교 교사들의 인식 분석을 통한 대학 입학사정관제의 학교생활기록부 평가방법 고찰, 교육평가연구, 22(3), 587~614.
- 김성경(2003). 대학신입생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2), 215~237.
- 김수연·김시라(2009). 입학사정관 평가를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정성적 평가 모형 탐색, 인문사회과학연구, 23(1), 35~59.
- 김영경(2008). 대학 신입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 연구: 상담 및 심리치료, 20(4), 1191~1210.
- 김용기(2008). 입학사정관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및 발전방안, 한국교육논단, 7(2), 127~147.
- 김은영(2001). 한국 대학생의 진로탐색장애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희(2008). 입학사정관 도입의 의의, 대학교육, 156호.
- 김종운·김현정(2010). 자기성장 집단상담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효과, 수산해양교육연구, 22(1), 123~140.
- 김택형·양성관·문성빈(2009). 한국과 미국의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프로그램 비교연구, 비교교육연구, 19(3), 107~134.
- 노명순(2006). 대학입학정책 변화요인의 역사적 신제도주의적 분석. 교육행정연구, 24(3), 241~264.
- 문주천(2009). 입학사정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형·박남기(2008). 일본의 대학입시와 입학사정관제도, 비교교육연구, 18(3), 207~230.
- 박성미(2006). 대학생을 위한 멘토링 기능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18(1), 49~57.
- \_\_\_\_\_(2009). 전문대학생을 위한 학습전략 진단도구의 개발, 수산해양교육연구, 21(1), 2009.
- 박영신·김의철(2002). 한국사회의 교육적 성취: 현상과 심리적 기반, 교육심리연구, 16(4), 325~351.
- 박종운·차타순(2009). 수·해양대학생들의 진로선택과 진로탐색, 수산해양교육연구, 21(3), 459~469.
- 박혜림(2009). 대학입학사정관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교육방법연구, 21(1), 21~46.
- 손희권·주휘정(2009). 신문에 제시한 대학입학사정관제 개선방안의 비판적 고찰, 교육문제연구, 34, 1~24.
- 송정원·이현정·이대균(2007). 2,3년제 대학 유아교육과 신입생의 학과적응과정의 질적 고찰, 열린유아교육연구, 12(2), 375~401.
- 신소영·박양근(2006). 대학 신입생의 진로 목표 설정을 위한 blended learning program 개발 및 운영사례 연구, 진로교육연구, 19(1), 59~74.
- 안선희·정일환·주동범(2009). 입학사정관제의 합리적 정착을 위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 연구, 교육정치학연구, 16(2), 7~33.
- 양성관(2008). 대학에서 바라보는 입학사정관제도, 대학교육, 156호.
- \_\_\_\_\_(2009). 대학입학사정관제의 특징 및 개선방안 분석-Cooper 등 4차원 정책분석모형을 사용하여, 교육정치학연구, 16(3), 125~148.
- 양성관·정일환(2007). 미국 대학입학제도의 전형자료, 입학사정관제도 및 기여입학제도 분석, 비교교육연구, 17(3), 167~190.
- 염민호·이효성(2007). 신입생교육의 개념 및 전략구성-전남대학교 단과대학 학장들의 인식과 대학의 대응, 교육행정연구, 25(2), 305~327.
- 유현주(2009). 역할에 기초한 입학사정관 전문성 훈련 프로그램, 한국교육논단, 8(2), 131~153.
- 이규봉·오원태·위인숙·장주섭(2007). 대학 신입생의 수학 기초실력 분석, 수학교육논문집, 21(4), 613~620.
- 이제봉(2007). 대학생 기초학력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 대학교육의 준비성 모형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17(1), 103~123.
- 이제중(2009). 대학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인식 및 기대분석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연(2001). 교육단계에서의 효율적인 진로지도 방안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현청(2006). 대학자율과 대학입시의 방향, 교육법연구, 8(2), 147~181.
- 이혜성·손영숙·김미경(1989). 대학생의 문제진단 및 해결행동 체크리스트 제작 연구, 학생생활연구, 25, 42~103.
- 정일환·김병주(2008). 미국대학 입학사정관제도의 운영사례와 시사점, 한국비교교육연구, 18(4), 113~139.
- 정진곤(2005). 미국대학의 학생선발방법과 한국입시제도예의 시사점- Berkeley, Stanford와 Washington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평가연구, 18(2), 149~171.

- 정현웅 · 김미숙 · 임윤희 · 권희숙(2007). 우리나라 대학입시 정책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복지행정연구*, 23, 239~260.
- 한광희 · 양은주 · 최송미(2001). 대학 신입생의 진로의식에 대한 태도연구, *연세상담연구*, 19, 3~18.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0. 4. 6.). 대학의 자율적 입학사정관제 운영방안 발표 보도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홈페이지 <http://uao.kcue.or.kr>
- 황상하(1995). 대학생의 스트레스 및 대처방식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bouserie, R. (1994). Sources and levels of stress in relation to locus of control and self-esteem in university students, *Educational Psychology*, 14(3), 323~331.
- Baker, R. W., McNeil, O. V., & Siryk, B. (1985). Expectation and reality in freshman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1), 94~103.
- Betterncourt, B. A., Chaelton, K., Eubanks, J., & Kernahan, C. (1999). Development of collective self-esteem among students: Predicting adjustment to college,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2(13), 213~222.
- Goldman, C. S. & Wong, E. H. (1997). Stress and the college student, *Education*, 117(4), 578~604.
- Lapsley, D. K., Rice, K. G., & Shadid, G. E. (1989).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Counseling Psychology*, 36(1), 286~294.
- Loeb, R., & Magee, P.(1992). Changes in attitudes and self-perceptions during the first two years of college,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3, 348~355.
- Pascarella, E. T., Smart, J. C., & Ethington, C. A. (1986). Long-term persistence of two-year college students,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24(1), 47~71.
- Perry, L. (1982). Special population: The demands of diversity. In E. L. Herr & N. M. Pinson(Eds.), *Foundation for policy in guidance and counseling*, Washington, DC: American Personnel and Guidance Association.
- Stage, F. & Haussler, D. (2000). Where is the students?; Linking student behaviors, college choice, and college persistence, In J. Braxton(ed.), *Reworking the student departure Puzzle*. Nashville, Tenn: Vanderbilt University Press.
- Upcraft, M. L., Gardner, J. N., & Barefoot, B. O.(2005). *Challenging and supporting the first-year student: A handbook for improving the first year of college* San Francisco: Jossey-Bass.
- Zunker, V. G. (2005). *커리어 상담: 생애설계의 응용개념*(김완석, 김선희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 논문접수일 : 2010년 10월 18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0년 12월 13일
  - 게재확정일 : 2011년 01월 15일